

겸손과 영적 전쟁

© 2001 년 1 월 아세르 인트레이터

영적 전쟁의 제일 원칙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 하면 공격적 기도와 마귀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많은 경우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겸손과 복종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대학살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4:6-7, 10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구절들 가운데 복종과 겸손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 혹은 선제 조건임을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본성 자체가 교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동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전문 영역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에게 교만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전략을 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만은 사탄의 공격에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 그는 영적 교만 (“하나님처럼 되어서” - 창 3:5) 과 지적 교만 (“선과 악을 알게 된다” - 창 3:5)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적, 영적 교만은 오늘날에도 악행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교만을, 스스로를 낮추어 복종함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마귀의 움직임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 마귀 같은 교만이 반역과 분열로 이끌게 됩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의 반역이 교만으로 부추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8:17

너는 네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네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여기서 “자랑하다”는 단어는 “가아바”인데, 교만이라는 뜻의 단어 “가-아바”와 어근이 비슷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의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나쁜 태도를 갖게 하여 결국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교만에 의한 것입니다. 한 쪽에서 겸손을 보이면, 분열은 최소화됩니다.

예슈아께서는 어떤 왕국이라도 스스로에 대하여 분열하면 망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눅 11). 마귀는 하나님의 왕국이 망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는 분열과 반역을 통해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반역은 교만이 그 원천에 있습니다. 교만은 악한 씨앗을 위한 옥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사탄에게 그 땅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만은 개인적 불안이나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덮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 부족을 감추기 위해 “복어”처럼 자신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실제로는 심리적 온전함과 내면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불안을 감출 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은 자신의 교만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전 굉장히 민감해요”라는 말을 합니다). 것처럼 감정이 상했다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라든지 “명예에 모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 즉 교만이 많지 않은 이는 쉽게 감정의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때로 자신이 옳음을 너무나 확신하는 사람이 교만 속에 있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받는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기쁨 부으심을 받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마귀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얘기라면, 벗어나십시오.